

#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철학의 근본문제'의 의의

김 재 기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I - 2. '철학의 근본문제'와 유물론의 질적 발전
II. 예비적 고찰 :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의 형성과 '철학의 근본문제'	III - 3.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
III. 본 론	IV. 맺 음 말
III - 1. 엥겔스의 '정식'(定式)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I.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그의 저작과 연관된, 또는 그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여지는 모든 종류의 철학적 조류를 다 지칭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다루어질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에 그 연원(淵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의 사후 100 여년에 걸쳐 독특한 발전을 거듭해 온 철학 체계만을 뜻하며, 이 철학 체계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엥겔스 및 레닌에 의해 이루어진 철학적 연구 성과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보통 '정통(orthodox) 마르크스주의 철학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 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 철학 체계를 그냥 마르크스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sup>1)</sup>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 이후 주로 소련 등 동구의 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체계는 많은 부분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핵심(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인간 해방)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마르크스주의

주 1) 대부분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초기의 G. Lukačs, L. Colletti, K. Korsch 등)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체계, 또는 승인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체계가 마르크스의 본래 사상을 왜곡했다고 보며, 오늘날에도 많은 서구의 비판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예를 들면 H. Lefebvre 나 A. Schmidt 등) 또 동구권에서도 상당수의 철학자들(주로 유고슬라비아나 체코 등의 철학자들)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을 비판한 바 있다(K. Kosik이나 G. Petrović 등)

철학의 적자(適子)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체계가 과연 마르크스 자신의 철학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고, 기존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

1930년대 스탈린 시대 이후 공식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체계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dialektischer und historischer Materialismus)이다.”<sup>2)</sup> 이러한 주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증법과 유물론의 통일, 철학의 당파성, 유물론을 사회 인식에 적용한 점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 철학이 철두철미하게 강조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에서는 우선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전체 체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중시되고, 결국 ‘관념적인 것(das Ideelles)’과 ‘물질적인 것(das Materielles)’ 존재와 의식사이의 관계를 문제삼는 이른바 ‘철학의 근본문제’(Grundfrage der Philosophie)가 그야말로 근본문제로서 체계 전체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은 예전의 유물론보다 질적으로 높은 새로운 차원의 유물론이며, 그 핵심은 세계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능동적 ‘실천’을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로 승화시킨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물질적인 것의 제1차성과 선재성(先在性)을 내세우는 유물론의 주장은 인식할 수 없는 자연 존재(칸트 식으로 말하면 몰자체)에 대한 형이상적 언명으로서 결국 마르크스의 철학을 존재의 형이상학으로 변질시킨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었고,<sup>3)</sup> 또 유물론의 일방적인 강조만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여러 혁명적 특질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왜곡될 우려마저 있다는 주장이 정통 마르크스주의 철학 진영 내부에서도<sup>4)</sup>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판은 더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신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sup>5)</sup>

주 2) 동독에서 최근에 간행된 철학 교과서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 hrsg. von W. Eichhorn I et al., Berlin, 1982, S.9.

3) 이러한 비판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말의 신(新)칸트학파에게로 소급되지만, 20세기 이후의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G. Lukačs, 『역사와 계급의식』(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1923)이 있고 G. Wetter, 『변증법적 유물론』(Dialektischer Materialismus, 1948)도 유명하다.

4) 1956년 소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 이른바 ‘스탈린 비판’이 있고 난 뒤에, 동구권 내부에서도 기존의 철학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에 동독의 철학 잡지인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지상에서 벌어졌던 ‘유물론과 실천’에 대한 논쟁이 있다. 논의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芝田進午 編譯, 『現代의 마르크스主義 哲學 論爭』, 青木, 1970을 참조하라.

5)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J. Dietzgen 과 G. Plekhanov로 알려져 있다. 전자는 『인식론의 영역에서 한 사회주의자가 겪은 편력』(Streifzüge eines Sozialisten in das Gebiet der Erkenntnistheorie, 1887)에서, 후자는 1891년 『새시대』(Die Neue Zeit)에 발표한 「헤겔 60주기 기념 논문」(Zu Hegels sechzigstem Todestag)에서 각각 이 용어를 사용했다. 특히 Engels는 Plekhanov의 논문을 읽은 뒤에 ‘탁월하다’(ausgezeichnet)고 칭찬했다. Engels가 1891년 12월 3일 Kautsky에게 보낸 편지, K. Marx/F. Engels, Werke(이하 MEW로 표기) Bd. 38, S.235.

더욱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을 그의 사회 이론 또는 실천 이론(이것은 흔히 '변증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에서 찾고, 반면에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마르크스와 무관한 것이라고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크스 철학이 현재와 같이 '왜곡'된 것은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 이론<sup>6)</sup>과 플레하노프(Plekhanov) 및 레닌의 소박한 유물론<sup>7)</sup>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물론적인 체계 전체를 뒷받침해 주는 '철학의 근본문제'가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구나 이 문제 자체가 원래 마르크스 아닌 엥겔스에 의해서 정식화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철학의 근본문제'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 중 일부분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 자체의 기본 성격이 '철학의 근본문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될 것이다.

## II. 예비적 고찰 :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의 형성과 '철학의 근본문제'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의 형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르크스(및 그의 동료였던 엥겔스)의 사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와 같은 철학 체계로 정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단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로 공식 교과서들<sup>8)</sup>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의 원형은 아무래도 엥겔스의 『반(反)뒤링론』(Anti-Dühring, 1878)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sup>9)</sup> 엥겔스의 이 저작은 당대의 소(小)부르조아 사회주의자였던 뒤링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철학, 정치경제학 및 사회주의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세 구성부분<sup>10)</sup>을 처음으로 포괄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히 철학을 다룬 제1부에서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기본 원리들과 변증법의 기본 법칙들을 비교적 상세히 해명하였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모든 발전은 맑건 적건 간에 모두 다 이 저작과 연관되었으므로, 변증법적

주 6) 엥겔스의 『자연 변증법』(Dialektik der Natur)은 오늘날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체계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지만, 이 책은 1925년에야 비로소 출간되었으며, 이미 그 보다 훨씬 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알려져 있었다.

7) 레닌의 유물론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L.N. Suvorov, 『레닌주의의 재해석』(Marxist Philosophy at the Leninist Stage, Progress Publishers, 1982), 유명훈 옮김, 세계, 1988 중 제4장을 참조하라.

8) 대표적인 것으로는 F.V. Konstantinov et al.,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초』(Osnovy marksistkoj filosofii, Moscow, 1958), F.V. Konstantinov et al., 『The Fundamentals of Marxist-Leninist Philosophy』, Progress Publishers, 1982 등이 있다. 특히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철학사』Ⅱ, Ⅲ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소개되었다.

9) MEW Bd. 20, Berlin, 1983.

10)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W.I. Lenin이다. Lenin, Werke, Bd. 19, S.3 ~ 9.

유물론의 체계에 반대하는 이들은 늘 엥겔스의 이 저작 자체가 마르크스와 무관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출발하곤 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이 원래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주제는 아니므로, 여기서는 엥겔스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sup>11)</sup> 이 저작을 집필할 때 두 사람이 협동했다는 점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엥겔스가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의 형성에 끼친 영향은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그는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 1873~83)을 통해서 자연과학과 유물론적인 변증법을 연결시켰으며, 새로운 유물론 철학이 단순한 사회 이론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전체를 그 대상으로 포괄하는 전일적(全一的)인 세계관임을 보여 주었다. 또 그는 유명한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1888)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정식화하고, 자신과 마르크스의 사상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성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sup>12)</sup>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포괄적인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술하였다. 마르크스 자신은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한 초기의 몇몇 저술들<sup>13)</sup>을 제외하고 나면 철학 일반에 관한 문제보다는 주로 현실 정치의 분석이나 경제학 연구에 몰두한 반면, 그의 사상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적인 원리들 또는 그의 연구의 보편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은 오히려 엥겔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던 것이다.<sup>14)</sup> 엥겔스의 뒤를 이어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레닌도 이미 최초의 저작인 「인민의 벗이란 누구인가」(1894)에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면서<sup>15)</sup> 유물론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유물론과 경험비판론』(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 1909)에서도 그대로 관찰되며, 『철학 노트』(Philosophische Hefte, 1914~15)에서는 다시 유물론과 변증법의 통일로 나타난다. 이처럼 엥겔스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은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하여 유물론적인 입장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 유물론과 변증법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단선적

주 11) 엥겔스는 『반(反) 뒤링론』 제2판 서문(1885)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개진되어 있는 견해는 대부분 마르크스가 정립하여 발전시킨 것이고, 극히 적은 부분만 내가 해 놓은 것이므로, 나의 이 저작이 마르크스 모르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일이다. 나는 인쇄하기 전에 원고 전체를 그가 읽어보도록 하였고 경제학 편의 제 10 장은 마르크스가 직접 쓴 것이다”……”

비판자들은 이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엥겔스의 말을 의심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엥겔스와 마르크스를 분리시키려는 대표적인 시도로는 Z.A. Jordan, *The Evolution of Dialectical Materialism*, London, 1967 이 있다.

12) MEW Bd. S.527 을 보라(이 표현은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의 영어판 특별 서문에 나온다).

13) 『헤겔, 국법론 비판』(Kritik des Hegelschen Staatsrecht, 1843), 『경제학-철학 수고』(O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1844), 『독일 이데올로기』(Deutsche Ideologie, 1845) 등이 이에 속한다.

14) 이 점에 대해서 엥겔스는 이것이 “자신과 마르크스 사이의 분업”이었다고 말했다. MEW Bd. 21, S.328 참조.

15) Lenin, *Was sind die Volksfreunde und wie kämpfen sie gegen die Sozialdemokraten*, Werke Bd.1, S.165 및 183 참조

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존재와 사유,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으므로 모든 철학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철학에서 이룩한 혁명적 도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마르크스 이전의 낡은 유물론에 대한 비판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유물론(즉 변증법적 유물론)의 질적 차별성을 어디서 확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이 문제는 실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낡은 유물론적인 관점이 기계론적인 결정론이나 경제주의 등의 실천적 오류를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엥겔스 자신도 유물론적인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계속 낡은 유물론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레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념론의 대명사적인 헤겔의 철학(=변증법)을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적인 원천으로 끌어 올리면서 주체(Subjekt)의 능동성과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sup>16)</sup> 이처럼 복잡한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자, 다시 일련의 철학 논쟁을 거쳐 1930년대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공식적인 체계로 완성된다. 이 체계의 최종적인 완성은 물론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1938)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구의 비판자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의 마르크스주의 철학 체계가 전적으로 스탈린의 '독단'(Dogma)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 사이에 진행된 기계론자들과 데보린(Deborin)주의자들 사이의 논쟁 및 데보린주의자들과 미틴(Mitin)과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sup>17)</sup>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의 사상 속에 담겨 있던 철학적 핵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주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공식적 체계화는 일정한 정치적 의도와 배경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왜곡의 가능성 또한 병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철학 또는 세계관의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고, 각종 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 전체가 토대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정된다고 보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는 정치와 철학의 상호연관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논쟁 과정을 통하여 이미 레닌에 의해 수차 강조된 바 있는<sup>18)</sup> '철학의 근본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그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 해답 위에서 인식론이나 변증법의 여러 법칙 및 세부 내용들이 구성됨으로써 객관주의적 편향(기계론자들과 주관주의적 편향(데보린주의자들과)이 모두 비판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요한 논쟁 뒤에 최초의 공식 교과서가 1934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책에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책의 맨 앞부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유물론과 관념론(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출현하게 된 원천과 역사), 변증법적 유물론의 중요한 문제들(세계의 물질성,

주 16) 이러한 입장을 레닌은 상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인간의 의식은 객관 세계를 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도 한다.” Lenin, Werke Bd. 38, S.203.

17) 이 논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M.Deborin & N.Buchar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tischen Materialismus*, Frankfurt, 1969 를 참조하라.

18) Lenin, Werke Bd. 14, *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 서론을 참조하라.

물질과 의식, 진화와 인식의 이론들)이 차례로 다뤄지고 있다.19) 이러한 체계 구성은 흔히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레닌적 단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불리는데, 여기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레닌이 제시한 철학적 물질 개념 20) 과 “마르크스의 철학은 인류, 특히 노동자계급에게 강력한 인식수단을 제공해 준 완전한 철학적 유물론” 21) 이라는 명제에 힘입어 더욱 더 철학 체계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근본적 문제로 정립되었다. 그러면 ‘철학의 근본문제’ 속에 담겨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 비교적 단순한 이 문제들이 마르크스주의 철학 전반에 대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 III. 본 론

#### III-1. 엥겔스의 ‘정식’(定式)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 저작에서부터 계속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지적하면서 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의 기본 원리를 옹호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정식화하여 표현한 것은 엥겔스였다. 그는 비교적 말년의 저작인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에서 이를 서술했는데, 제기된 문제의 형식은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모든 철학, 특히 근대 철학의 주요한 근본문제(die große Grundfrage)는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아득히 먼 옛적부터, 즉 사람들이 아직 자신의 신체구조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사유와 감각을 신체의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신체에 깃들여 있다가 죽음이 오면 신체를 떠나가는 어떤 특수한 영혼의 활동으로 생각하던 때부터 ——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영혼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머리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

따라서 철학 전체의 최고 문제인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 자연에 대한 정신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야만상태의 편협하고 무지한 생각에 그 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충분히 날카롭게 제기되고 완전한 의의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중세의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부터였다. 존재에 대한 사유의 관계에 관한 문제, 즉 무엇이 근원적인가, 정신인가 아니면 자연인가라는 문제 —— 이 문제는 교회에 맞서서, 신이 세계를 창조했는가 아니면 세계는 영원한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첨예화되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철학자들은 두 개의 커다란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정신이 자연보다 근원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따라서 결국 어떤 종류든지 일종의

주 19) Suvorov, 앞의 책, p.210 참조.

20) 물질에 대한 레닌의 유명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질이란 인간의 감각에 주어지고, 우리의 감각에 의해 묘사되고 촬영되고 반영되며, 감각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를 가리키는 철학적 범주다.” Lenin, Werke Bd. 14, S.124.

21) Lenin, Werke Bd. 19, S.5.

우주창조를 인정한 사람들은 관념론의 진영을 이루었다. 반면에 자연을 근원적인 것으로 본 사람들은 유물론의 다양한 유파에 속한다.

관념론이나 유물론이라는 표현은 모두 위에서 말한 바 이외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표현은 여기서도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강조는 모두 인용자) \* 22)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유에 대한 존재(자연)의 근원성(Ursprünglichkeit)'을 정식화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첫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철학의 근본문제' 자체의 역사적 생성과 발전이다.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에 유의해 본다면, 먼저 '철학의 근본문제'가 왜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근본문제'로서 제기되었으며, 또 철학 전체를 지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되었는가를 문체삼아야 한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사의 전 과정, 특히 근대 이후의 발전 과정을 사회·경제적인 발전 및 여러 과학의 진보와 연관지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룰 수 없지만, 근대 철학이 인식론(주-객 관계)에 주로 관심을 쏟은 점이라든가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이원론적인 형이상학이 끝내 두 개의 극단적인 대립항(독일 관념론과 프랑스 유물론)으로 분열되어 나아가는 과정 등은 '철학의 근본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sup>23)</sup> 따라서 '철학의 근본문제'의 정식화는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도식화가 아니라, 철학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제시된 구체적인 분석틀의 정립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철학의 근본문제'를 형이상학적 존재론화의 증거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철학적 개념들이 그렇듯이 '철학의 근본문제'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들(존재와 사유, 정신과 자연 등)<sup>24)</sup>도 역사적인 발전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풍부한 역사적 내용을 갖는다. 엥겔스는 느닷없이 "물질인가 정신인가?"라는 식의 추상적인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근본문제'가 원시의 야만상태에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관념론적인 해답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함축, 자연(객관적 존재)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과학)과 유물론과의 필연적인 상호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엥겔스의 문제설정 자체가 철학사의 발전의 한 정점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철학의 근본문제'가 결코 이론적인 차원, 또는 인식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철학의 근본문제'가 갖는 실천적 의의가 무시되는 한 그것이 근본문제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엥겔스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이 역사 속에서 무신론과 유신론(창조론)의 대결로 구체화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철학의 근본문제'의 실천적 의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교회

주 22) MEW Bd. 21,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deutschen klassischen Philosophie, S.274 ~ 5.

23) 이 점에 대해서는 拙稿,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의 인간 이론에 관한 연구」, 1987년도 석사학위 논문 참조.

24) 이 두 종류의 개념쌍은 엥겔스 자신이 거의 구별없이 사용한 것이다. 뒤에 레닌은 이를 헤겔 식 용어의 잔재라고 보고 그 대신 물질과 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용어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여기서는 논의에 지장이 없는 한 '존재-자연-물질'과 '사유-정신-의식'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겠다.

에 맞서서(*der Kirche gegenüber*)”라는 문구의 의미를 간과한 채, ‘신에 의한 세계 창조’의 진위만을 묻는 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순전히 현학적인(*scholastische*) 물음”<sup>25)</sup>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속에서 벌어진 계급들 간의 투쟁, 특히 이데올로기 투쟁, 그때 교회가 수행한 실천적 역할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왜 ‘철학의 근본문제’가 ‘창조냐 아니냐?’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sup>26)</sup> 철학사가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투쟁의 역사라는 주장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두 유파가 대립되어 왔다는 뜻이 아니다. 이론적인 대립은 오히려 실천적인 대립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철학의 근본문제’ 자체의 역사적 생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준 추진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철학의 근본문제’의 역사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통일시켜서 이해해야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가 근대 이후에 완전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과 사람들이 근대(특히 19세기) 이후에 역사적 변화의 동인을 계급투쟁에서 찾게 되는 것<sup>27)</sup>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폐된 투쟁이 공공연한 투쟁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현실에 대한 이론적 파악도 일정한 체계로 드러날 때, 그 형식의 내면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 체계를 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전제다. 따라서 ‘체계화=도식화’라는 도식은 근거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비역사적이고 관조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유물론적인 기본 원리를 ‘사유에 대한 존재의 근원성’으로 요약하고 그 문제 설정 자체의 역사적·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뒤에, 엥겔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측면도 갖고 있다: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Gedanken*)은 이 세계 자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의 사유는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표상과 개념 속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 문제를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며,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린다.”<sup>28)</sup>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대답은 흔히 ‘세계의 인식가능성’(*Erkennbarkeit der Welt*)으로 표현되며,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인식론인 ‘반영이론’의 중심 개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정식화된 물질(자연, 존재)의 근원성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개념도 유물론과 관념론, 특히 불가지론(不可知論)과의 구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의 인식가능성’이 어떻게 입증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의 실천을 통해서”라는 대답이 주어진다. 주관적 관념론이나 불가지론과 같은 “철학적 망상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논박을 가한 것은 실천, 즉 실험과 산업이었다.”<sup>29)</sup>

주 25) Marx, MEW Bd. 3, S. 5.

26) 이런 점에서 “창조냐 아니냐”라는 물음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 발생의 역사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F. Richter, “Zum Verhältnis von Grundfrage der Philosophie und Objekt-Subjekt-Dialektik” i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이하 DZfP로 표기), 8/72, S.1016 참조.

27) MEW Bd. 21, S.299.

28) 위의 책, S.275.

29) 위의 책, S.276.



는 우리의 의식과 삶의 형이상학적 전제가 아니라 실천적·구체적 토대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사유에 대한 존재의 근원성'이라는 유물론의 기본 명제는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용이 충분히 드러날 때에만 철학 체계 전체를 규제하는 세계관적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계기가 바로 실천과의 상호연관인 것이다. 그러나 실천이 '철학의 근본문제' 해결의 토대라고 해서 '근본문제' 자체가 실천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근본문제'의 성립도, 그것에 대한 유물론적인 대답의 궁극적인 확증도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천'이라는 범주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분석하기 전에는,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 상당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우선 엥겔스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유물론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기로 하자.

## II-2. '철학의 근본문제'와 유물론의 질적 발전

앞에서는 주로 엥겔스가 제시한 정식에 따라 '철학의 근본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방향만을 점검해 보았다. '사유에 대한 존재의 근원성'으로 요약되는,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대답은 도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며, 또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생성·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소간 포괄적인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 엥겔스가 강조했던 근대 철학사를 약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물론의 기본 원리를 분명하게 정식화한 것은 사실 마르크스 이전의 부르조아 유물론자들(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대개 기계론적인 점에 있었으므로 보통 기계적 유물론자라고도 불린다)이었고, 따라서 유물론 일반의 기본 원리와 엥겔스의 정식과의 관계, 또 낡은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질적 차이와 '철학의 근본문제'와의 관계 등이 중요한 탐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의 모든 형이상학자들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중요한 문제로서 의식하고 있었고,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안고 있는 자기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학자들은 유물론만이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18세기의 프랑스 유물론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18세기까지의 유물론을 집대성한 『자연의 체계』(Système de la nature, 1770)의 저자 홀바하(Holbach)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하고, 인간의 "영혼(의식)을 신체의 기능 또는 능력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면서, 버클리 류의 주관적 관념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36)</sup> 한편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을 다시 왕좌 위에 올려 놓았던 포이에르바하도 무의식적인 "자연 존재가 1차적이며, 의식적인 인간 존재는 2차적"이라고 주장하면서<sup>37)</sup>, "철학사 전체가 본래 이 문제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고대 철학에서의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과, 플라톤주의자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회의주의자와 독단론자 사이의 투쟁, 중세 철학에서의 실재론자와 유명론자의 투쟁, 근대의 관념론자와 실재론자 또는 경험론자의 투쟁은 모두 이 문제에 귀착될 뿐"<sup>38)</sup>이라고 선언했다. 홀바하나 포이에르바하의 주장을 살펴보면 엥겔스가 제시한 정식이 이미 그 속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장

주 36) D'Holbach, *Système de la nature*, London, 1770, p.1, 93 및 158 참조.

37) L. Feuerbach, *Sämtliche Werke* Bd. 8, S. 26.

38) L. Feuerbach, *Das Wesen der Religion*, Stuttgart, O. J., S. 141.

는 것이다. 실천이 우리 인식의 성립을 보증하고 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엥겔스와 레닌이 수차례에 걸쳐 되풀이하여 강조한 바 있다.<sup>30)</sup> 그렇다면 ‘철학의 근본문제’의 첫번째 측면과 두번째 측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문제’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두번째 측면이 인식론적인 것이라고 해서, 첫번째 측면이 존재론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존재론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실체론적인 형이상학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또 인식론적이라는 말도 ‘실천’개념을 밑에 깔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번째 측면과 두번째 측면은 동일한 ‘근본문제’의 두 측면일 뿐이며,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에 대한 대답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것은 포이에르바하의 표현대로 “우리가 심장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성으로써 확인하는 것”<sup>31)</sup> 이지만 이러한 확인, 즉 이론적 규정과 천명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유물론적인 기본 원리의 입증이다. 철학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계의 인식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이 기본 원리, 즉 ‘사유(의식)에 대한 존재(자연)의 근원성’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완물이다. 사실 ‘존재의 근원성’에 대해서는 엥겔스 자신도 “물질이 정신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 그 자체가 물질의 최고 산물일 뿐”<sup>32)</sup> 이라는 포이에르바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상의 상세한 설명이나 논증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엥겔스가 막연히 자연의 선재성(先在性)을 선협적으로 전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엥겔스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대신, ‘존재의 근원성’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과 이를 통한 대상 인식(이것은 객관적인 인식이다)의 측면을 ‘세계의 인식가능성’으로써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철학의 근본문제’의 두 가지 측면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문제’자체를 놓고 보면 첫번째 측면이 두번째 측면보다 더 ‘근본적’이며 규정적이다.<sup>33)</sup> ‘존재의 근원성’은 아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풍부해지고 원리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사실 엥겔스가 말한 ‘존재=자연’은 칸트가 말한 물자체(Ding an sich)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물자체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추상물이며, 그러한 것을 무조건 전제한다면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형이상학적으로 회화화(戲畫化)된 자연”<sup>34)</sup>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엥겔스가 말한 ‘자연=존재’는 우리의 실천과 인식에 의해 늘 물자체로부터 ‘우리에 대한 물’ (Ding für uns)로 전화하며,<sup>35)</sup> 이를 통해서 ‘자연=존재’

주 30) MEW Bd. 19, S.530 -1 및 Lenin, Werke Bd. 14, S.132-8을 보라.

31) L. Feuerbach, Grundsätze der Philosophie der Zukunft, Werke Bd. 3, S.320.

32) MEW Bd. 21, S.277-8.

33) Engels는 ‘철학의 근본문제의 두번째 측면을 서술한 직후에, 관념론자인 Hegel도 ‘세계의 인식가능성’을 긍정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두번째 측면으로는 ‘근본문제’가 완전히 해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의 책, S.275-6. 을 참조하라.

34) Marx/Engels, Die heilige Familie MEW Bd. 2, S.147.

35) MEW Bd. 21, S.276.

은 그야말로 “모든 유물론 일반에 다 관계되는 ABC”<sup>39)</sup>인 셈이며, 이 점에서는 엥겔스의 정식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철학의 근본문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낡은 유물론의 한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질적인 새로움도 드러나지 않는다. 엥겔스가 ‘철학의 근본문제’를 정식화시켜 표현했을 때, 그의 목표는 철학 전체를 규제할 원리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헤겔과 포이에르바하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부정하고 지양한 결과 그들 자신(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철학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이 변증법(헤겔의 유산)과 유물론(포이에르바하의 유산)을 산술적으로 조합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엥겔스가 포이에르바하의 공로와 한계를 논하면서,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서술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sup>40)</sup>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하가 “사회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념론자로 남아 있었으며”<sup>41)</sup> 또 “일반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유물론과…… 일정한 역사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세계관의 특수한 형태를 혼동했다”<sup>42)</sup> 비판했을 뿐,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한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엥겔스의 비판의 핵심은 포이에르바하가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답을 더욱 철저하게 끝까지 밀고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 해답을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엥겔스가 자신들(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물론에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기서 처음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이 정말 진지하게 다루어졌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영역에서 철저히 관찰되었다는 데 있을 뿐”<sup>43)</sup>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그렇다! 낡은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차이는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의 총체적 의의를 전면적으로 자각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 세계관을 모든 지식의 영역에 철저히 관찰시켰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유물론에 ‘변증법’을 양념처럼 곁들인다고 해서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물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답 이외의 다른 어떤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세계관적 의의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기본 원칙의 철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해서만 내용의 풍부함(예를 들면 변증법)도 획득될 수 있다.

이처럼 ‘철학의 근본문제’의 근본적 성격이 유물론의 질적 비약을 방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전제임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그러한 비약을 통해서 유물론의 기본 원칙인 ‘존재의 근원성’은 어떠한 내용을 얻게 되는가를 살펴보자.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의식(사유)에 대한 물질(존재)의 근원성’은 아주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수천 년에 걸친 여러 과학 및 철학의 성과와 인류의 역사적 경험 전체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총괄해 놓은

주 39) Lenin, *Werke* Bd. 14, S.99

40) 엥겔스의 이 저작(『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엥겔스는 I부에서 간단하게 헤겔을 소개한 뒤 II부 맨 첫머리를 ‘철학의 근본문제’를 정식화하는 데 바치고 있다.

41) MEW Bd. 21, S.281.

42) 위의 책, S.278.

43) 위의 책, S.292.

것이다. 이것은 첫째 인간이 두뇌라는 물질로 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이미 18 세기의 생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이며, 그 뒤 생리학과 심리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두뇌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입증되었다. 둘째로 이것은 자연(물질)이 인간의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자연은 본래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 기간인 발전의 결과 의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인간 의식의 내용은 물질적인 현실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의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산출해 내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의식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외부 세계의 '반영'(Widerspiegelung)인 것이다. 그러나 '의식에 대한 존재(물질)의 근원성'을 설명하는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실들은 이미 기존의 유물론에서도 다 확인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증법적 유물론의 경우에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답을 주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물론의 기본 원칙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풍부해 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엥겔스 자신의 언급을 통해서 대담한 바 있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엥겔스의 정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철학의 근본문제'를 역사적·실천적 측면에서 고찰해야 하며,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대답도 궁극적으로는 실천에 의해서만 확정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역사적·실천적 측면이란 '왜 그러한 문제(사유와 존재의 관계라는 문제)가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근본문제'로서 다른 모든 것을 규제하는 현실적 의의를 갖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뜻한다.<sup>44)</sup> 물론 엥겔스 자신은 이 물음에 대해 같은 글 속에서 상세히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근본문제'는 실천적 필요(Notwendigkeit)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 그 문제가 더 분명한 형태로 정식화되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해 진 것은 역사적인 필연(Notwendigkeit)이었다. 엥겔스가 다른 저작에서 "사유와 물질의 관계를 해명해야 할 필요 때문에"<sup>45)</sup> 자연발생적 유물론으로부터 관념론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필요란 바로 실천적 필요이며, 이때 실천이란 기본적으로는 물질적 생산을 비롯하여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계급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이 늘 계급투쟁과 연결되어 나타나며, 그러한 투쟁의 이데올로기적인 반영을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철학의 근본문제'다. 사실 인간이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또 물질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의식을 상정하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분리,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생산에 대한 각종 관념의 지배(사회적으로 보면 계급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관념론의 생성·발전이 역사적 필연이듯이,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 및 유물론을 통한 관념론의 극복 또한 인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진행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는 '철학의 근본문제'의 외적 형식(문제의 틀)만이 아니라, 문제 자체의 역사적 생성·발전과 그 실천

주 44) 이 점과 관련하여 Kosing의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A. Kosing,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Weltanschauung und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in DZ f P, 8/69, s.918 이하를 참조하라.

45) MEW Bd. 20, S.129.

적 의의까지도 분명하게 자각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답이 보편적 세계관으로서 지식의 모든 영역에 철두철미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sup>46)</sup> 증시하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혁명적·실천적 세계관이 ‘철학의 근본문제’를 보는 입장에서든 그대로 관철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의 근본문제’가 갖는 실천적 의의에 대한 강조와 유물론적인 해답의 철저한 관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물론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전체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혁명적 세계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제요 토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내용만으로는 유물론 자체의 질적인 발전, 즉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답의 내용적 심화(深化)를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앞에서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답을 궁극적으로 확증해 주는 것은 실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실천의 중요성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에 의해서 누누히 강조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역시 불충분하다. 새로운 유물론의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유물론이 묻지 않았던 또 하나의 물음을 물어야 하며, 이 물음 자체에 대해서 유물론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대답해야만 한다. 즉 유물론은 자기 반성을 거쳐 자기의 식적인 유물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물음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유물론의 근거가 실천이라면 그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인간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혼란에 빠질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유물론의 기본 원칙은 “의식이 물질의 발전의 산물”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과거의 유물론은 이 사실을 단지 선언했을 뿐이다. 물론 그러한 선언의 배후에는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적어도 과거의 유물론은 이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분명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러니칼하게도 인간의 실천을 다루는 사회와 역사의 영역에서는 관념론에 빠져 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유물론의 궁극적 근거가 실천이고 또 의식 없는 실천이 있을 수 없는 한, 우리는 ‘의식에 대한 물질의 근원성’이라는 유물론의 기본 원칙에 대해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의식(즉 물질 세계를 변형시키는 실천의 구성요소인 의식)이 주어졌는가, 즉 물질은 어떻게 의식을 발생시켰는가?” 이 물음은 과거의 유물론이 한 번도 친치하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고<sup>48)</sup>, 따라서 이 물음에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해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주46) MEW Bd.3, S.7.

47) 위의 책, S.5~7.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에 자신들을 ‘실천적 유물론자’라고 불렀다. 위의 책, S.42. 또 본고의 주 30)도 참조하라.

48) 물론 그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진화론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를 철학적으로 소화내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엥겔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Engels, MEW Bd.21, S.280.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며,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무지였다.

III-3.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제기된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난제(難題)를 풀어 나아가야 하며,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실마리만이라도 찾아 보기로 하자.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 의식이라는 속성이 주어졌는가라는 물음은 의식을 인간의 '자연적 속성'으로만 보는 과거의 유물론에게 던지는 의문이기도 하다. 마르크스 이전의 유물론자들 중에서는 가장 확고하면서도 폭넓은 시야를 지녔던 포이에르바흐조차 인간의 의식이 사회적으로 형성·규정되는 측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최고로 발전한 물질의 산물인 의식은 역시 물질의 최고 발전 형태인 사회의 운동에 의해 생성되고 규정되며 새로운 내용을 얻는다. 따라서 의식의 생성 과정은 이미 단순한 자연적 과정만은 아니며, 사회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물질적인 성격을 떨쳐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에 대한 편협한 이해, 자연과학의 테두리 안에 물질을 가두어 놓으려는 견해만이 물질의 사회적 운동 형태를 보지 못하며, 따라서 물질의 사회적 운동 형태 속에서 의식의 형성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유물론적인 기본 원칙의 철저한 관철임과 동시에, 그 내용의 질적 심화이기도 하다. 그러면 물질의 사회적 운동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낡은 유물론의 가장 커다란 한계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미 청년시절에 이를 명료하게 비판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포이에르바흐를 포함하여-의 주요 결함은 대상, 현실, 감각을 단지 객체 또는 직관의 형식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인간적-감성적 활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즉 주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49)</sup>

이 유명한 문장은 마르크스의 사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이며, 이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체계를 비판하면서, 오로지 '실천'만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핵심 범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근거로 주관주의적인 편향에 빠지기도 하였다.<sup>50)</sup> 물론 마르크스는 여기서 인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낡은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자신이 여기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철학의 근본문제'와 실천과의 관계일 것이다. 마르크스가 '객체 또는 직관의 형식'이라고 쓴 것은 무엇을 뜻하며, '주체적으로'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 실천만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논자(論者)들은 이 대립을 문자 그대로 주-객의 대립, 즉 주-객 관계로 파악하고, 실천이 이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매개한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주-객 관계는 물질-의식 관계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sup>51)</sup>, 따라서 주-객 관계를 매개하는 변증법적 실천만으로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한다. 실천이 주-객 관계의 핵심이고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르크스가

주49) Marx/Engels, *Thesen über Feuerbach I*, MEW Bd. 3, S. 5.

50)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H. Seidel, "Vom praktischen und theoretischen Verhältnis der Menschen zur Wirklichkeit" in DZ fP, 10/66을 보라.

51) 이 점에 대해서는 F. Richter, 앞의 논문 및 H. Klotsch, "Zum Problem der Objekt-Subjekt-Dialektik" in DZ fP, 10-11/65 등을 참조하라.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 그러한 종류의 매개였을까? 이 글의 중심 주제는 분명히 '유물론'이다.<sup>52)</sup> 따라서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철학의 근본문제' 자체를 평가절하하거나 도외시해 버리는 해석은 옳은 것일 수 없다. 더군다나 실천 그 자체도 허공에서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또 추상적인 개체의 근거없는 능동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은 위의 글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독일 이데올로기』(Deutsche Ideologie, 1845)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 당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물질적 생산'과 이에 의해 형성되는 '생산관계'였으며, 그 이유는 그들이 관념적 사변으로 역사와 사회를 설명하려는 과거의 독일 철학에 맞서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과학"<sup>53)</sup>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생산은 늘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산이며, 또 생산관계 또한 그 속에 얽혀 있는 개개인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재로서 '물질적인 것'이다.<sup>54)</sup>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제시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핵심은 사실상 '생산의 사회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 사회와 역사의 영역에서 유물론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조건과 관계를 통해서만 구체화되고 관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삶은 본질 상 모두 실천적이다."<sup>55)</sup> 여기서 실천이란 일정한 사회적 조건과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며, 그런 의미에서 감성적·대상적 활동이고 물질적인 활동이다.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실천'을 통해서 유물론을 인간 사회와 역사의 영역에까지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객체 또는 직관'과 '주체적으로'라는 표현 사이의 대립은 단순한 주-객 관계를 뜻하지 않음이 분명해진다. 물론 마르크스는 주체의 능동성, 실천의 현실 변혁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능동성과 현실을 변혁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 그 자체이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생산=노동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과거의 유물론이 현실을 "객체 또는 직관의 형식으로만 파악했을 뿐"이라고 비판함으로써, 그 현실이 사회적 현실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다. '직관'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에 의해 매개되지 못한 한 개인의 이론적 태도이며, 따라서 낡은 유물론, 즉 "직관적 유물론이 도달하는 최고의 수준은 '부르조아 사회'의 개개인의 직관이다."<sup>56)</sup> 다른 한편으로 '주체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는 막연하고 신비로운 능동성의 주체인 개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즉 물질의 최고 운동 형태인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서의 '인류 전체=사회 전체'를 뜻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재로서의 사회는 개개인에게는 늘 객체이지만,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물론의 입지점은 인간 사회 또는 사회화된 인류이며"<sup>57)</sup> 그 위에서만 세계의 변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주 52) W. Suchting, "Marx's Theses on Feuerbach: A New Translation and Notes Towards a Commentary" in *Issues in Marxist Philosophy* vol. 2, The Harvester Press, 1979, p. 6.

53) MEW Bd. 3, S. 27.

54) 이 점에 대해서는 G. Stiehler,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und die Unterscheidung materieller und ideologischer Verhältnisse" in *DZ fP*, 8/80 을 참조하라.

55) MEW Bd. 3, S. 7.

56) 같은 곳.

57) 같은 곳.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는 실천 개념을 ‘철학의 근본문제’와 연결시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철학의 근본문제’가 갖는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실천개념 자체를 철학의 주요 범주로 끌어들이으로써 ‘철학의 근본문제’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지니고 있는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sup>58)</sup>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실천’개념을 철학적으로 주체화시킨 것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커다란 공로며, 더구나 이것은 유물론을 인간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에까지 철저히 관찰시키는 일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식-실천이 대등한 범주로 파악되어야 한다거나<sup>58)</sup>, ‘철학의 근본문제’가 그 기본 틀(물질과 의식의 관계,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가?)에서부터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sup>60)</sup>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철학의 근본문제’는 실천, 특히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실천 개념을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그 내용이 더 심화되고 풍부해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유물론의 기본 원칙 자체가 철저히 관찰되고 ‘철학의 근본문제’의 보편적·세계관적 의의가 전면적으로 자각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자연과학 상의 새로운 발견에 의하여 철학적 ‘물질’개념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철학의 근본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성격(고도의 추상성, 보편성)을 무시한 채, 질적인 풍부함을 표현해 주는 개념들(변증법이라든가 실천 등등)만으로 기본 개념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야 어찌 됐든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혼란인 것이다.

#### IV. 맺 음 말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철저한 유물론적 세계관 위에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철학의 근본문제’라는 문제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철학의 근본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철학사, 더 나아가 역사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으며 어떤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적 정체(正體)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철학의 근본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혁명적·실천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더 나아가 철학 일반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해명해 준다. 셋째 ‘철학의 근본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으로 하여금 유물론적인 기본 입장을 지킬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물론이 지녔던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넷째 ‘철학의 근본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이룩해 낸 질적인 발전(변증법적 사유방식, 실천 개념의 철학적 주체화 등)을 올바로

주58) 60년대에 있었던 동독의 철학 논쟁은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을 완전히 씻어 내지는 못했다. 또 이 논쟁을 평가하면서 유물론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던 森信成도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제1테제」를 해석할 때 ‘객체 또는 직관’=형이상학, ‘주체’=변증법이라고만 파악하여 문제의 핵심에서 약간 빗나가고 있다. 森信成, 『현대 유물론의 기본 과제』, 민해철 옮김, 서툼, 1985, p.15~18 참조.

59) A. Kosing, 앞의 논문 참조.

60) H. Seidel, 앞의 논문 참조.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철학의 근본문제'가 지니고 있는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철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Marx/Engels, *Werke* (이하 MEW 로 표기) Bd. 2, Dietz Verlag Berlin, 1956 이후  
MEW Bd. 3  
MEW Bd. 19  
MEW Bd. 20  
MEW Bd. 21  
MEW Bd. 40 (Ergänzungsband I)
- Lenin, *Werke* Bd. 14 (*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 Dietz Verlag Berlin, 1985  
\_\_\_\_\_, *Werke* Bd. 38 (*Philosophische Hefte*), Dietz Verlag Berlin, 1973
- Feuerbach, L., *Werke in 6 Bänden* Bd. 3, Suhrkamp Verlag, 1975  
\_\_\_\_\_, *Sämtliche Werke* Bd. 8, Stuttgart, 1960
- D'Holbach, Baron, *Systeme de la nature*, London, 1770
- Eichhorn, W. I et al., *Marxistisch-leninistische Philosophie*, Dietz Verlag Berlin, 1982
- Griese, A. et al.,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 입문 I』, 윤 정운 옮김, 거름, 1988
- Jordan, Z.A., *The Evolution of Dialectical Materialism*, London, 1967
- Mepham, J. & Ruben, D-H. (ed.), *Issues in Marxist Philosophy vol. 2: Materialism*, The Harvester Press, 1979
- Suvorov, L.N., 『레닌주의의 재해석』, 유 명훈 옮김, 세계, 1988.
- 芝田進午 編譯, 『現代のマルクス主義 哲學論争』, 青木, 1970.
- 森信成, 『현대 유물론의 기본 과제』, 민 해철 옮김, 거름, 1985.
- Gropp, R.O., "Über eine unhaltbare Konzeption" in *DZfP* 9/67, S. 1092-1104
- Herzberg, G., "Materialismus and Praxis" in *DZfP* 8/67, S. 968-980
- Klotsch, H., "Zum Problem der Objekt-Subjekt-Dialektik" in *DZfP*, 10-11/65, S. 1196-1212
- Kosing, A., "Gegenstand, Struktur und Darstellung der marxistischen Philosophie" in *DZfP*, 7/64, S. 781-807

김재기

- \_\_\_\_\_,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Weltanschauung und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in DZfP, 8/67, S. 901-937
- Löser, C.,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und das Verhältnis von Objektivem und Subjektivem" in DZfP, 2/87, S. 144-150
- Peters, J. & Wrona, V., "Die Praxis und das System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hilosophie" in DZfP, 9/67, S. 1105-1119
- Richter, F., "Zum Verhältnis von Grundfrage der Philosophie und Objekt-Subjekt-Dialektik" in DZfP, 8/72, S. 1012-1026
- Seidel, H., "Vom praktischen und theoretischen Verhältnis der Menschen zur Wirklichkeit" in DZfP, 10/66, S. 1177-1191
- \_\_\_\_\_, "Praxis und marxistische Philosophie" in DZfP, 12/67, S. 1470-1485
- Stiehler, G.,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und die Unterscheidung materieller und ideologischer Verhältnisse" in DZfP, 8/80, S. 950-964